PR Focus

세계 10대 휴대폰기업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휴대폰 기술강국으로 부상하였다. 2000억 규모로 추정되는 휴대폰 윈도우시장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성장세가 뚜렷하다. 많은 휴대폰 부품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휴대폰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다.

휴대폰 부품업계의 새 격전지, 윈도우시장

국산화율을 끌어올려라

SWP신우전자, In-line 제조라인 구축

창업 18년간 모바일 IT의 주요부품을 생산 · 판매해온 휴대폰 부품 전문기업 SWP신우전자(대표 허훈)는 월 150만개의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회사의 기존 생산라인은 윈도우 제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착공정(MULTI 증착, NI 증착, AI 증착 등)의 모든 작업이 가능해 고객의 어떠한 요구조건도 만족시킬 수 있다. 또 전 공정이 사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개발 및 생산기간을 단축시켜 납기대응이 빠르고, 모든 작업이 크린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특히, 휴대폰 윈도우가 부착되는 folder 부분의 Ass'y line을 직접 가동하고 있어 제품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 과정이 아웃소싱 없이 사내에서 처리되며, In-line으로 구축된 제조라인으로 신우전자는 품질 차별화에 성공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후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휴대폰 윈도우의 강자가 된다는 것이 신우전자의 비전이다.

부품업계의 리더가 되어 사업을 확대하겠다 ● SWP신우전자 허훈 대표 | 휴대폰산업의 변화무쌍한 시장변화 속에서 당사는 관련 부품의 혁신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는 스피커, 휴대폰 등 소형제품 위주로 생산에 주력하고 있지만 2005년에는 Audio 등 가전부문까지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위해지역에 가동 중인 생산라인을 증설할 예정이다.

펨텍, 휴대폰 부품사업 본격 진출

부품 소재 전문기업인 펨텍(대표 유재성)이 휴대폰 부품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펨텍은 넥스텔(대표 오헌국)과 공동 투자로 부품사업부를 신설하여 휴대폰용 윈도우 코팅사업을 강화한다고 최근 발표하였다.

현재 이 회사는 휴대폰용 윈도우 코팅라인 구축을 완료하였고 승인 대기 중에 있다. 펨텍이 보유한 코팅라인은 기존 윈도우 코팅라인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불량률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윈도우를 코팅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유연하게 설계해 기존 In-Mold 타입 윈도우의 약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특히, 내스크래치성이 강한 UV도료를 개발하여 경도를 극대화시켰다는 것도 경쟁사에 비해 펨텍만이 갖는 강점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또 국내 휴대폰 업계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휴대폰 윈도우시트 국산화로 막대한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 부품 소재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 ● 펨텍 유재성 대표 | EMI 차폐도료를 자체 개발하여 휴대폰 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윈도우 코팅사업부 신설에 박차를 가해 휴대폰 부품 소재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또한 11월 중순 양산을 앞두고 보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추가로 설비를 발주한 상태이다. 추가 설비가 완료되는 내년 초부터는 월생산량이 3배로 늘어날 것이다.